

의약분업			번호: III - B - 6		
제 목	국문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환자관계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영문	A qualitative study on changes in doctor-patient relationship by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of pharmaceuticals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동문 ¹⁾ , 이종규 ²⁾ , 남상곤 ³⁾ , 정윤선 ¹⁾ , 김창엽 ¹⁾ , 문옥륜 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 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3)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영문	Dong Moon Kim ¹⁾ , Jung Kyu Lee ²⁾ , Sang Gon Nam ³⁾ , Yun Sun Jung ¹⁾ , Chang Yup Kim ¹⁾ , Ok Ryun Moon ¹⁾ 1) Department of Healthcare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의약분업	발 표 자	김동문	발표형식	구 연
			전 공 의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1월				
<p>1. 연구목적</p> <p>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2000년 7월, 갑작스런 의약분업의 시행은 보건의료의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년이 지난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정부 산하기관 및 학계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의약분업 후에 나타난 거시적인 변화(예를 들면, 처방지표의 변화, 의료이용량의 변화, 약국의 처방조제량 변화 등)를 계량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는, 사실 관련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제도이며, 특히 처방전의 공개는 소비자 알권리 신장, 정보 비대칭성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의원 외래에서의 의사-환자관계에서도 어떤 행태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zasz-Hollender의 의사와 환자관계의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의약분업 전후의 의사-환자 관계의 변화를 질적으로 연구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의약분업 이후의 의사 환자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일반인터뷰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 외래에서 대기하고 있는 외래환자 6명에 대하여 일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의사는 종합병원 2, 의원 3, 의과대학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균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현재, 의약분업의 미시적인 행태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심층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다.</p> <p>3. 연구결과</p> <p>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① 의사: 약가 마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소신처방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처음에는 불쾌감만을 표시하였으나 현재는 처방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행태가 변화하고 있었다.

② 환자: 의사의 행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 국민들은 행태변화가 부정적이었다. 우선, 의약분업에 대하여 긍정적이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았다. 또한 처방전에 기입된 내용에 대해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의사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데 비해 국민들의 행태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이를 Szasz-Hollender의 의사와 환자모형에 적용해보면 분업전의 지도-협력(가부장적)관계는 처방전이 공개됨으로 인해 상호협조형으로 이행해가고 있었다. 이는 의사들이 외부의 평가를 받게됨에 따라 일반국민의 행태변화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사 스스로 처방에 신중을 기하고 권위적인 행태를 줄이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고찰

Szasz-Hollender는 의사-환자 관계를 환자가 가진 병의 심각도와 그에 대한 의사의 적절한 고려와 선택된 치료방법에 의해 능동-수동, 지도-협력, 상호참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상호협조형이다.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분업 전에는 권위적인 지도-협력의 관계였으나 분업 후에는 상호참여의 유형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행태 변화이며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의약분업 전후로 행태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의사-환자관계에 있어서 상호참여유형을 정착시키려면 의료소비자의 의식 및 권리의 강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